조개껍데기 탑 쌓기 - 자연놀이

개발자	윤명숙, 오제명
해변 탐방 후 조개껍데기(패각류)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탑 쌓기와 다양한 그림, 글자 만들기 등을 통해 자연물을 관찰하며 해양생물에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조개껍데기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연에 돌려주는 놀이를 통해 자연보전의식을 함께 함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SNS에 올려서 기념품을 받아가는 등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활용대상	유아 ~ 성인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조개껍데기, 휴대폰
소요시간	20분
제작비용	없음



	
놀이방법 소개	조개껍데기 탑 쌓기

운영방법
1. 참여자에게 조개껍데기 탑 쌓기 안내판을 통해 놀이방법을 설명해준다. 2. 주변에 있는 조개껍데기를 주워 다양한 탑, 그림, 글자를 꾸미게 한다. 3. 인증촬영을 하여 SNS 등에 올려 뽐내기 자랑을 한다. 4. 마무리하며 주운 조개껍데기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돌아갈 수 있게 한다.
향후방향
– 가족단위 탐방이 많은 해안형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기념사진 촬영 및 인화서비스 등을 접목하고 SNS 인증 등을 통한 자연보전 캠페인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확장하여 다양한 탐방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내용
– 태안해안 주변에는 바지락, 빛조개, 동죽, 개량조개, 큰구슬우렁이 등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며 특히 패각을 통해 각 패류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다. – 빛조개 : 패각 외부 색이 적갈색을 띠며 각피가 벗겨진 부분은 패각 안쪽의 보라색이 그대로 비춰져 보인다. – 큰구슬우렁이 : 패각 표면은 매끈하며 넓고 반원형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패류나 고둥류를 덮거나 치설을 이용하여 패각에 구멍을 내 속살을 파먹는 먹이활동을 한다. – 동죽 : 둥근 삼각형 모양에 회백색을 띠며 5~10월 산란기를 가지고 있다.
주의사항
– 모래, 갯벌 등 조개껍데기를 주을 때 날카로운 병류 쓰레기 등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유의사항을 전달한다. – 썰물, 밀물 시간에 맞춰 놀이를 진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